

빗물이용시설에 탄소여과장치 설치

전주시, 내달까지 지역업체 개발 제품으로... 빗물을 여과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대표 빗물 재이용 선도도시인 전주시가 빗물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탄소여과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수질개선을 통해 모여진 빗물용도를 다양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구축·운영 중인 빗물 이용시설에 빗물여과장치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까지 국비와 시비 등 2000만 원을 투입해 유치원과 어린이 집, 학교, 공동주택 등 빗물을 다양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초기 우수 여과장

치 미설치로 수질이 불량한 구도심 해피하우스 지역 등 33개소 빗물이용시설에 탄소여과장치를 설치 예정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환경부 국비지원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역인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에 구축되는 빗물이용시설 30곳에도 탄소여과장치를 모두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업체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탄소제품인 탄소 빗물여과장치는 빗물에 함유된 이물질과 오염물질, 냄새 등을 여과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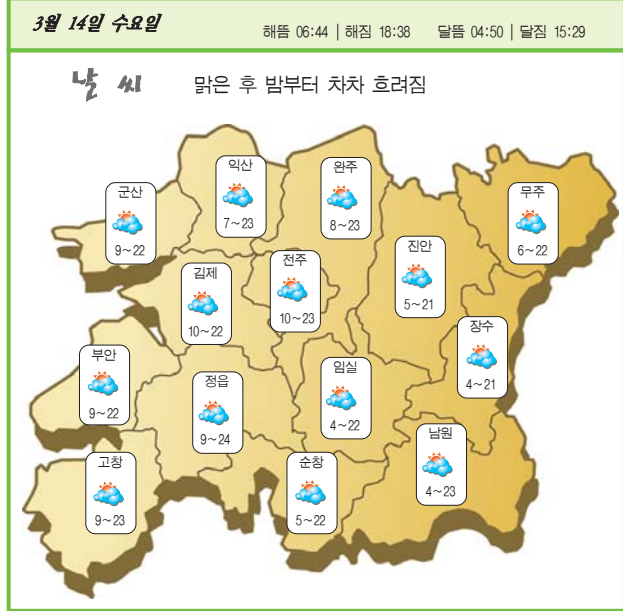
있는 시설로 여과장치를 이용하면 빗물을 세탁용수와 세척용수, 화장실용수 등 보다 다양한 용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빗물은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해소, 맑은 빗물이 하수도로 버려져 빗물자원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탄소여과장치를 부착해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2곳을 대상으로 여과 처리된 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

수 19개 검사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탄소여과장치의 설치 확대는 수질개선을 통한 빗물이용 활성화는 물론 탄소이용제품의 판로와 시장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탄소여과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등 전주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촉촉한 도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혁신도시 이동도서관 운영 금암도서관, 매주 수·목

전주시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은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혁신도시 내 △호반베르디움 3·5·6차 △우미린 1·2차 △중흥S클래스 △LH 이노벨리스 아파트단지 찾아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및 도서대출(1인5권, 대출기한14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은 올해도 21년째 도서관 시설이 없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도서관은 휴한기(1-2월)와 휴서기(8월)를 제외하고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혁신도시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와 다양한 독서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운영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거나 금암도서관(063-281-6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병해충 방제 드론 시연회 익산시가 13일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 목천동 만경강변에서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사전 검사

농·수·축산물 시료 수거해 출하·유통단계에서... 결과 홈페이지에 올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중 다소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연중 초·중·고·특수학교 조리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서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며 가급적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전 출하단계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계약재배 생산자 및 공급업체 농산물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검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의 경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해 둔갑관매와 부정유통 방지 위해 학교현장에서 시료 수거를 실시한다. 검사의뢰는 공인검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 등에 의뢰해 검

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생산자)와 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폐기, 출하연기, 유통금지, 교육, 인증취소 및 행정처분 등을 즉시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대, 학생 취업 이바지 '최우수' 평가

경영관리커플링사업단, 도 성과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전북대학교 경영관리산학관커플링사업단(단장 박경수 교수)이 2017년 전라북도 대학산학관커플링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는 기존 이공계열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이다.

경영관리산학관커플링사업단은 상경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반과 어학강좌, 현장실습, 인턴·사회, 예체능 계열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이다.

경영관리산학관커플링사업단은 상경계열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반과 어학강좌, 현장실습, 인턴·사회, 예체능 계열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학, 기업이 산·학·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해 도내 기업에 공급해 청년 취업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유도하고 있다.

박경수 단장(경영학부 교수)은 "사업단이 운영하는 맞춤형 경영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기업 수요에 맞춤형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 함양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극심한 취업난에 힘입어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북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확대

전북도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을 확대한다.

13일 전북도교육청은 단위 학교가 연간 8시간 이상의 평화통일교육 운영을 권장하는 등 올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단위학교가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 4시간 등을 활용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병영체험, 군대식 훈련 등을 전면 폐지하며, 평화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5~6월경 단위 학교의 자율로 통일교육주간 운영으로 교내 행사, 탐방이 하는 통일교실 등 계기 수업 실시도 추진한다.

통일강사단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수업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58개 초중고교, 322개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15개 중고교 사제동행 통일동아리를 지원하고 교사 20명으로 구성된 평화통일 교사지원단을 운영한다. 7월에는 학생 60여명 참여하는 분단 현장 DMZ캠프, 학생 통일 탐구토론회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통일부와 협의해 학생들의 남북교류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북교육청의 남북교육 교류협력조례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